

## 오피니언

## 다산포럼

금강



봄 숲은 참으로 화려하다. 눈길은 자꾸 창밖을 벗어나 봄 숲을 향해 내달린다. 짙 박한 삫을 추구하는 수행자에겐 비움과 담백함으로 체워진 겨울이 맞춤 계절이란 걸 안다. 하지만 지난 겨울은 주위가 너무 깊었다. 어느 해도 차운 찬란한 봄을 기다렸다. 형형색색의 저 봄 빛깔이 그리웠다.

봄 숲은 참으로 조화롭다. 나무 한 그루의 뿌리와 줄기가 비례하고, 계절에 따라 잎과 꽃과 열매 또한 그 나무에 가장 적합한 만큼의 것들만 남기고 덜어낼 줄 안다. 그런 다양각색의 나무들이 모여 있는 숲은 가장 조화로운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한다.

키가 작은 복수초는 얼음을 깨고 피어나고, 보라빛 현호색은 복수초 떠난 자리에 무리지어 봄 마중을 한다. 자리를 타우는 일 없이 때와 장소를 달리하며 한 터전에서 멀지게 공존한다.

이처럼 갖가지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듯 수행자들이 한 곳에 모여 각자 소임을 하며 수행을 하는 절을 총림(叢林)이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총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각기 다른 모습과 생각과 꿈을 간직한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숲에 모여 자기 끝의 삶을 엮어가고, 때론 연대하고 공존하면서 멀지게 살아가니까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50여 개의 종교와 600여 개의 교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이 거의 비슷한 비율의 신

종교가 사회적 역할보다 교세 확장이나 유지에 더 많은 노력을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최근 이웃종교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우연한 기회로 프랑스의 제2차 공동체를 에 다녀왔다. 초종파적인 가톨릭 재단으로 수사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전 세계 청년들이 매주 2000여 명씩 참여해 북상을 하고, 토론하며 노동하는 건강한 공동체였다.

인종과 종교를 넘어 젊은 청년들과 호흡하며 종교적 권위를 벗어던진 수사들의 모습이 꼭 인상적이었다. 특히 자신을 낮

종교인을 향해서도, 타 종교와의 대화에 도 이제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종교가 생겨난 궁극의 목적에 충실했던 본래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대회에 필요한 기술이 '밀린다왕문경'이라는 옛 책에 나온다. 기원 전 2세기 후반 서북 인도를 지배한 그리스의 왕 밀린다 와 인도의 고승인 나가세나 존자가 나눈 대화이다.

밀린다왕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과시하고 싶어서 나가세나 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자 나가세나 존자가 물었다. "왕께서는 왕들의 대화를 원하십니까? 현명한 이들의 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밀린다 왕이 다시 물었다. "왕들의 대화는 무엇이고, 현명한 이들의 대화는 무엇인가?" 이에 나가세나 존자가 대답했다.

"왕들의 대화는 자신의 주장에 맞지 않으면 놀라서 부정해 버리는 것이고, 현명한 이들의 대화는 남의 주장이라도 옳으면 받아들이는 대화입니다."

현대 사회는 종교의 깨달음과 보살행에

서 대안을 찾기보다 과학력과 정보력,

집단에 의존한 사회다. 그 속에서 개인과

사회는 무한 경쟁으로 폐해지고 있다.

아름다운 봄 숲처럼 가장 조화로운 세상

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명한 종교인들의

대화가 필요한 때이다.

〈미황사 주지 스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명한 종교인들의 대화가 필요한 때

도를 거느리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종교의존도가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문제를 생겼을 때 종교에 의지하여 해결할 가능성 또한 높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2008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이 고민이 생겼을 때 자신이 다니는 종교의 지도자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비율은 0.7%에 지나지 않았다. 100명 중 겨우 1명 정도가

그동안 종교는 이웃종교와의 대화나 세

상의 문제보다는 자기 문제에 집중해 왔던 게 사실이다.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쉬운 내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자기

추어 봉사하고 봄을 움직여 노동하는 수사들의 모습이 솔직하고 헌신적이다.

침묵 속에 전해지는 그들의 몸짓 법문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아리랑 TV에서 기획한 서강대 서명원 신부 교수와 종교 간의 대화를 4일 동안 미팅에서 활동하였다. 서명원 신부는 불교의 선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이해와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말한다.

그동안 종교는 이웃종교와의 대화나 세상의 문제보다는 자기 문제에 집중해 왔던 게 사실이다.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쉬운 내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자기

고,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작은 기초질서부터 잘 지키고 개개인이 먼저 법을 지키겠다는 의식을 확산시켜 준법의식을 생활화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비약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기성세대의 법 경지 풍조가 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에서의 원칙(Rule) 위반 행위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른들부터 기초질서를 안 치킨네이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광주지검 관내만 해도 소년사범이 1년 평균 5000여 명이나 발생하고 있고, 전국 소년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소년은 적정보호인원을 한참 초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성세대들이 몸소 준법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가장 기본적인 기초질서부터 잘 지켜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성세대가 됐으면 한다

〈광주지검 공안부 검사〉

## 주변 작은 것부터 지켜라

최근 좌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이었다. 필자가 타고 있던 차 오른편 직진차선에서 직진을 할 것처럼 보였던 택시 한 대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주위에 좌회전을 하는 것이었다. 아마 그 택시는 좌회전 차선에 차가 많이 밀려있자 직진차선에서 급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출근시간에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고 싶은 택시기사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필자에게는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최근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경제대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불법 주정차, 파손, 신호위반이 아직도 용인되고 있는 것 같아 적잖이 걱정된다.

'비단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은 규칙을 잘 지키게 되면 중요한 법령도 '꼭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사고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올해 12월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검사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불법선거사법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는 불법선거운동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초질서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도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법무부 인권국에 파견근무할 당시 캐나다 '밴쿠버 인권재판소', '캘거리 소년보호센터' 등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수용자 인권보호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들의 교통질서 준수 의식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찾기불 수 없었고,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는 차도 거의 없으며, 항상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문화를 보고 이래서 선진국인가 하면 도 '꼭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사고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에 머무르지 않

수 치는 안팎이 온통 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신문의 사회면을 도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인가?

소위 국정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 지도층의 문제 아닌가?

일찍이 노자는 "성인은 무위하게 일에 처신하며, 말로 교화하지 않으며, 말 없이 행동으로 본보기로 보여준다. 만물을 생성시키고 애기하지 않으며, 생겨나게 하고도 소유하지 않으며,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공을 이루고도 자기의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의 공이라고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 그에게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악동하는 봄날에 성인이 그리운 까닭은 무엇인가?

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윤례의 종선과 대선을 지켜보면서, 적어도 속 다르고 곁 다른 정치인을 그만 보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행복한 찬란한 봄날을 진정으로 맞이하고자하는 바램은 정녕 연복구어인가?

〈시인·수필가·광주고등학교 교장〉

면도기 끼워파는 면도날 가격체계 바꿔야

구를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고 있다. 정치실상에 실망하거나, 부패에 혐오증을 가지고, 아무리 탈정치를 하고 초연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하룬들 정치적 영향을 벗어 날 수 있는가? 이미 우리의 생활은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은 온나라가 정치적 경쟁과 선령들의 선출을 놓고 온갖 풍상을 다겪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300명의 당선자들이다. 대선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혼신하겠다고 나선 모든 사람들은 과연 진실한 국민의 봉사자들일까하는 의문이 가지지 않는 것이다.

혹시 누군가는 당리당략이나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없는가? 과연 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사람들일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기에, 밖으로 나타나는 주장과 말만을 듣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반신반의하고 있다.

진정으로 누가 희고, 누가 검은가? 예전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사람들은 깨마귀를 흉조(凶鳥)로 여긴다.

반포지효(反哺之孝)란 말이 있다. 곧 까마귀의 되먹이는 습성에서 '반포'라는 말이 나왔으며, 이는 '지극한 효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깨마귀는 '비록 같은 검어도 속은 흰' 효의 상징이며, 아름다운 새이다. 겉으로는 흰 척하면서 속으로 검을 대로 검은 사람보다 더 낫다. 한 개인이 거짓을 말하고 세상을 속이면 그 과정이 적지만, 정치하는 사람, 국민의 대표가 되는 사람,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허위를 자행하면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망한다.

정직한 척, 성실한 척, 애국하는 척하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공직을 맡고 나서 부정부패를 자행하여, 국민을 놀라게 하며 뒤통

정 공급하면서 잉크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잉크는 아주 고가에 파는 전략이 그것이다.

이젠 면도기도 이런 상술이 좀 바뀌었으면 한다. 관촉사원은 면도기를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끼워 파는 면도기를 사 준 끝이 된다. 면도기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는 상품의 포장단위와 판매가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바꿔주길 바란다. 이런 식의 기워 팔기는 결국 불필요한 물건의 구입으로 이어져 자원 낭비와 쓰레기만 생산할 뿐이다.

▲이승열·목포시 옥암동

도기 본체는 그냥 놔두고 칼날만 바꿔 쓰게 되는데 면도기 날은 교체하려고 대형 마트에 가 볼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자주 겪는다. 이상하게도 면도날만 몇 개 들어 있는 상품의 가격보다는 같은 개수의 면도날에 면도기까지 함께 들어 있는 상품의 가격이 더 싸다는 점이다. 마트 판매직원에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건 그 회사의 판매 방

## 시설

## 여수박람회 성공 여부 시민의식이 관건

여수세계박람회가 1일로 개막을 불과 12일 앞두고 있다. 현재 박람회장은 전시관과 각종 부대시설 등 모든 공사를 마친 상태다. 80개 전시관과 외국관과 아시아리움 등 인기 전시관으로 물리면서 2시간 가까이 줄을 서야 했다.

박람회 조직자는 이번 예행연습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따져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박람회장 주변의 원활한 접근을 위한 환승주차장~무료 셔틀버스 이용은 물론 시민들도 승용차 안타깝게 대회 성공의 제1조건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전시관별로 관람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수용 대책과 전시관 사전 예약제 정착을 위한 관람객 대상의 이해 및 홍보도 뒤따라야 한다. 시민들의 자가용 부족하다는 점을 암울한 바자기 요금 담합 등도 자제해야 한다. 여수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만전을 기해야만 성공 개최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 또 中선원 흥기에 단속공무원 부상 입다니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을 단속하는 공무원 4명이 중국선원의 흥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중국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속수무책임을 당한 것이다.

독포해경은 지난달 30일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45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획물 운반선(227t급)을 나포했다. 중국 선원들은 앞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의 명령에 불응, 흥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단속요원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들의 '죽기살기식' 대응도 있지만, 말뿐인 정부대책이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해양경찰이 이행호 경사 사망사건 직후 내놓은 단속역량강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내놓은 인력·장비 확충방안 등 어느 것 하나 이뤄진 게 없다. 이번에 피

## 無等鼓

100년 넘은 한국인의 미국 이민사에서 가장 큰 악동은 'LA 폭동'일 것이다. 지난 1992년 4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인근 시미밸리 법원에서 흑인을 무자비하게 구타한 백인 경찰관들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진 직후 흑인들의 폭동이 시작됐다.

1991년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흑인 로드리 칭 킹은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곤봉으로 마구 두들겨 맞은 끝에 중상을 입고 기소됐다. 당시 킹의 구타 장면이 한 시민의 캠코더에 생생하게 활용되며 공개되면서 흑인사회의 분노를 살고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에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6일 동안 계속된 폭동으로, 최대 희생자는 불행하게 된 것이다. 당시 1만여 피해업소 가운데 2800여개가 한인 소유였고, 전체 피해액 7억 달러 가운데 4억 달

러가 한인 봉일 만큼 심각했다. 이후 미국사회에서 한인과 흑인들은 소수민족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꾸준히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꼭 20년이 지난 LA 폭동은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에 큰 경종이다. 최근 들어 결혼과 취업 등으로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이 크게 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마음은 그들을 온전하게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의 1 남짓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유럽 등 선진 사회의 평균 창성 비율은 74%에 이른다는 통계다. 아직도 우리 가슴에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도사리고 있다는 반증이다.